

대학생의 성지식, 태도, 행동실태 및 성교육 효과에 관한 연구

전경숙 · 이효영 · 이선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목 차〉

I. 서론	V. 결론 및 제언
II. 연구방법	참고문헌
III. 연구결과	Abstract
IV. 고찰	

I.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성적인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의 성에 대한 문제는 어느 시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린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생의 전 과정을 통해 다루어져야 한다(김영희와 이명화, 1997). 대학생들은 연령상 생의 주기에서 후기 청소년기 및 성인 초기에 해당하여 신체적으로는 성장이 완료되는 시기이나, 아직도 학업에 전념해야 하며 갈수록 고도화되는 산업화로 교육기간 연장 및 결혼연령이 높아져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성인으로서 성행동이 허용되는 시기는

아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성적욕구를 억제하도록 요구 당하며 입시위주의 학교 교육에 시달려왔던 청소년들이 대학에 와선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생활환경에서 여러 활동을 통해 폭넓은 대인관계를 경험하면서 성적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물론, 이러한 성적 느낌과 활동은 누군가와 사랑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 성장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등의 긍정적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의 성적활동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들도 또한 많다 하겠다. 최근 김홍신(2002)의 미혼모 관련 국정보고서에 의하면 미혼모의 10대 비율은 52.7%, 20-24세가 33.7%로 10대 청소년 및 대학생 연령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3년 3월 현재 우리나라 AIDS 총 감염자는 2,122명으로

교신저자: 전경숙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번지 서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전화번호: 02-740-8872, E-mail: twinsonsmom@hanmail.net

1985년 첫 감염자 발견 이래 감염자수가 해마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감염자의 61.8%가 대학생 해당 연령군인 20대, 30대 이라고 한다(http://unaid.or.kr, 2003.9.22). 또한 낙태에 관한 전면적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낙태반대운동연합은 한 해에 100만에서 150만 건의 낙태가 이루어진다고 추정하고 있으며(http://www.prolife.or.kr, 2003.7.2) 임신여성 6명 중 1명은 유산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하였다(www.hongshin.net, 2003.7.2). 성적 활동으로 인한 이러한 문제들은 젊은이들에게 교육기회 및 고용의 기회를 빼앗기도 하며 훗날 안정된 결혼생활에 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이들이 겪게 되는 건강문제 및 사회문제로 인해 국민의 의료비와 복지비의 지출이 증가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한 우리사회는 1980년대 이후 청소년기의 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초·중·고 중심의 학교 성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관심은 계속되어왔다. 그러나 여전히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에 밀려 각 성장단계에 맞는 적합한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반영하듯, 대학생 대상 성관련 연구들에선 대학생의 성지식 수준은 50%미만으로 낮았으며(이인숙, 1995; 남명희, 1999; 김경신, 2001), 대학생의 성교육 요구도는 80%이상으로 매우 높았다(이인숙, 1994; 문인옥, 1997; 이영희 등, 1997; 이인숙 등, 2000).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이제는 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학 차치기구에 의한 행사 위주의 단기교육 실시를 시작으로 하여 1990년대에 들어와선 ‘여성과 생명’, ‘성의 과학’, ‘여성과 건강’ 등의 성에 관련된 교과목을 운영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 대상 성교육 내용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조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함과 동시에 현재 대학 내에서 관련교양과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성교육의 효과에 대한 검증을 통한 효과적인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선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행동 실태를 조사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성 관련 교과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성교육의 효과를 검증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효과적인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성교육 확대 실시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일개 대학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지식, 성태도 및 성행동 실태를 조사하고, 성교육을 실시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하여 향후의 대학생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성교육 실시확대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행동 실태에 대해 조사한다.
- 2) 성교육 개입이 있는 실험집단과 성교육 개입이 없는 비교집단에서 성교육 실시 전·후로 하여 성지식과 성태도의 변화정도를 비교 분석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설계

본 연구의 대상은 'H'대학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230명으로 '여성과 건강'이란 교양강좌를 신청한 남녀학생 113명을 실험집단으로 하였고 동일시기 동 대학 다른 교양강좌를 수강하는 학생 100명을 비교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설계는 유사 실험·대조집단 전후설계(Compromise Experimental Group-Control Group Pre and Post Test Design)로써 성교육 개입 바로 전날 두 집단 모두에서 사전조사의 형태로 성지식, 성태도 및 성행동 실태를 측정 한 후 2003년 6월 23일부터 7월 11일까지 실험 집단에 총 14차례의 성교육 개입이 이루어졌다. 성교육 실시 이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성지식, 성태도의 변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2. 연구의 도구

1) 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본 연구의 성교육 프로그램은 '성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 과학적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자신의 성'에 대해 이해하고 '바람직한 성 가치관'을 함양하여 스스로 '책임 있는 성행동'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하고 성교육의 내용은 '여성과 건강'이란 보건교육 내 통합교육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요구에 관한 여러 연구의 결과를 참조하여 '성의 의미', '성적 성숙과 발달', '임신과 출산', '피임과 유산', '성병', '음주 및 약물과 성', '성 기능 장애와 치료',

'성폭력과 성희롱'의 여덟 영역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주요 교육내용은 보건교육 및 성교육 전문 교수가 강의에 의해 전달하되 강의 보조도구로써 교육내용에 해당하는 비디오 등의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발표 및 토의 주제를 정하여 '여성과 건강' 강의가 시작되는 첫 시간에 제시하여 과제를 부여하고 자유롭게 10명 이내의 그룹을 형성하여 각각의 토의주제에 대해 그룹토의를 하도록 하였으며 토의과제 중 가장 관심 있는 주제 한 가지를 선택하여 그룹 토의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행동 실태조사와 성지식 및 성태도 변화중심으로 성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자기보고방식의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첫 단계로 문헌 고찰을 통해 본 연구의 목적에 필요한 내용을 발췌하여 설문지를 구성한 후 보건학 및 간호학을 전공한 교수 3인의 도움을 받아 본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였다. 연구 도구의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성 관련 특성 측정 도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성 관련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 나이, 전공, 종교, 출신 고교소재지, 부모 생존 여부, 부모의 학력, 가계 월 소득, 주거 형태, 부모의 성에 대한 태도, 성교육을 받은 경험, 성 정보 출처를 측정할 수 있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2) 성지식 측정 도구

Parcel, Luttman and Meyers(1979)의 연구에

서 사용한 20개의 성지식 도구와 이인숙(1995)의 성지식 측정도구(Cronbach's alpha ; 0.774), 계수연(1998)의 측정도구(Cronbach's alpha ; 0.749) 및 성신명(2000)의 측정도구(Cronbach's alpha ; 0.818)를 보건학 및 간호학을 전공한 교수 3인의 도움을 받아 본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35문항의 성지식 측정도구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전체 35문항은 생식생리 8문항, 성심리 3문항, 임신 8문항, 피임 및 낙태 5문항, 성병 및 AIDS 10문항, 성폭력 1문항으로 구성하여 정답은 1점, 오답 및 모른다는 0점으로 처리하였다. 도구의 결과 해석은 최저 0점에서 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에 대한 지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성지식 도구의 Cronbach's alpha는 0.851이다.

(3) 성태도 측정 도구

성태도의 측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하였다.

첫째, 전반적 성태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Hudson 등(1992)이 개발한 Sexual Attitude Scale(Cronbach's alpha ; 0.900)을 본인이 번역한 후 보건학 및 간호학을 전공한 교수 3인의 도움을 받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 ; 0.873). 도구는 Likert type 5점 척도의 25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도구의 결과 해석은 최저 0점에서 최고 100점으로 50점 미만의 경우 성에 대한 태도가 보수적인 편이며 50점 이상의 경우 성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인 것을 의미한다.

둘째, 혼전 성관계(2문항), 혼외 성관계(2문항), 이중적 성 가치관(6문항), 낙태(2문항), AIDS(2문항)의 5가지 세부 주제에 관한 성태도

를 측정하는 도구로써 Parcel, Luttmann and Meyers (1979)의 연구에서 사용한 Reiss's Premarital Sexual Permissiveness Scale과 Sexual Concern Check List, 이인숙(1995)의 연구에서 사용한 성태도 측정도구, 계수연(1998)의 측정도구 및 강병우(1994)의 측정도구를 참조하여 보건학 및 간호학을 전공한 교수 3인의 도움을 받아 본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Hudson 등(1992)이 개발한 첫 번째 성태도 측정도구는 실태조사 및 성교육 효과 검증을 위해 사전·사후조사에 사용하였으며 두 번째 세부 주제별 성태도 측정도구는 실태조사를 위한 사전조사에만 사용하였다.

(4) 성행동 측정 도구

성행동 측정도구는 성 관련 매체 접촉경험 유무와 월 평균 접촉회수, 이성교제의 경험유무, 이성교제의 깊이, 성교경험유무, 성고민 유무와 성 고민 해결방법에 대한 주·객관식의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PC+(version 10.0)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성지식, 성태도 및 성행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평균분석 및 상관관계분석을 사용하였다.
- (2) 실험집단과 비교집단간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지식 및 성태도 특성을 교차 분석하였다.

(3)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각각의 성교육 개입전 후 성지식, 성태도 정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평균차이 검증 (independent sample t-test)과 Pearson Chi-square를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동의 실태

1) 대상자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행동

(1) 성 관련 특성

대상자 부모의 성태도 분포를 보면 보수적인

가정이 48.1%(102명), 보통인 가정이 44.5%(94명)이며 개방적인 가정이 7.5%(16명)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표 1).

대상자의 성 관련 정보 출처로는 친구가 30.0%(64명)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인터넷 관련 사이트 25.8%(55명), 책·만화·잡지·신문 20.7%(44명), 영화·비디오·TV 13.6%(29명) 순이었으며 구체적 결과는 <표 2>와 같다.

성교육 경험을 보면, 대상자의 41.3%(88명)이 초등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았으며 평균 성교육 시간은 2.4시간이며 중학교에선 대상자의 65.3%(139명)이 평균 3.0시간의 성교육을 받았으며 고등학교에선 63.8%(136명)이 평균 3.4시간 성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표 1> 대상자 부모의 성태도

특성	구분	N	%
부모의 성태도	보수적	102	48.1
	보통	94	44.3
	개방적	16	7.5
	총계	0212	100.0

<표 2> 대상자의 성 관련 정보 출처

	구분	N	%
성 정보 출처	부모님	2	0.9
	학교수업, 강의	16	7.5
	친구	64	30.0
	형제·자매	1	0.5
	책·만화·잡지·신문	44	20.7
	선생님	2	0.9
	영화·라디오·비디오·TV	29	13.6
	인터넷 관련 사이트	55	25.8
	총계	213	100.0

등학교 전과정동안의 평균 성교육 시간은 5.0시간으로 나타났다(표 3).

(2) 대상자의 성지식

대상자의 성지식 점수는 최고 100점 만점기준에서 평균 72.54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영역별 성지식 평균 점수는 생식생리 86.97점, 성심리 83.72점, 임신 73.30점, 피임 및 낙태 70.23점, 성폭력 61.50점, 성병 및 AIDS 59.30점 순으로 성병 및 AIDS에 관한 정답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

(3) 대상자의 성태도

Hudson 등(1992)이 개발한 성태도 측정도구에 의한 대상자의 전반적 성태도는 64.70점(최저 0점에서 최고 100만점 기준)으로 긍정적, 개방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혼전 성관계, 혼외 성관계, 이중적 성가치관, 낙태, AIDS의 5가지 주제별 태도를 살펴해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첫째, 혼전 성관계에 대한 문항에서 대상자의 79.2%가 '사랑하는 사이라면 혼전이라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에 찬성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대상자의 37.6%가 '사랑하지 않는 사이에도 혼

<표 3> 대상자의 성교육 경험 유무 및 평균 성교육 시간

구분	유무	N	%	평균성교육시간
성교육경험(초)	있다	88	41.3	2.4
	없다	125	58.7	0.0
성교육경험(중)	있다	139	65.3	3.0
	없다	74	34.7	0.0
성교육경험(고)	있다	136	63.8	3.4
	없다	77	36.2	0.0
총계		213	100.0	5.0

<표 4> 영역별 성지식 점수의 차이

영역	남자(n=142) 평균±표준편차	여자(n=71) 평균±표준편차	소계(n=213) 평균±표준편차	t값
생식생리	85.30±17.51	90.32±11.22	86.97±15.84	-2.198*
성심리	84.51±20.50	82.16±25.72	83.72±22.34	0.722
임신	68.49±20.77	82.92±15.99	73.30±20.44	-5.142***
피임, 낙태	70.85±23.89	69.01±22.62	70.23±23.44	0.536
성병, AIDS	60.85±18.51	56.20±16.33	59.30±17.91	1.795
성폭력	52.82±50.10	78.87±41.11	61.50±48.77	-3.790***

* p<0.050, *** p<0.001

<표 5> 세부 주제별 성태도의 차이

						단위: N(%)
주제	문항	구분	남자 (n=142)	여자 (n=71)	소계 (n=213)	χ ²
혼전 성관계	사랑하는 사이라면 혼전 성관계 가능하다	찬성	116(82.3)	52(73.2)	168(79.2)	2.593
		보통	14(9.9)	12(16.9)	26(12.3)	
		반대	11(7.8)	7(9.9)	18(8.5)	
혼외 성관계	사랑하지 않는 사이라도 혼외 성관계 가능하다	찬성	70(49.3)	10(14.1)	80(37.6)	50.679***
		보통	38(26.8)	8(11.3)	46(21.6)	
		반대	34(23.9)	53(74.6)	87(40.8)	
이증적 성 가치관	남성들은 결혼 전에 성교 경험을 가져도 된다	찬성	79(55.6)	29(40.8)	108(50.7)	4.731
		보통	49(34.5)	30(42.3)	79(37.1)	
		반대	14(9.9)	12(16.9)	26(12.2)	
이증적 성 가치관	여성들은 결혼 전에 성교 경험을 가져도 된다	찬성	68(47.9)	27(38.0)	95(44.6)	1.863
		보통	49(34.5)	29(40.8)	78(36.6)	
		반대	25(17.6)	15(21.1)	40(18.8)	
이증적 성 가치관	남성들은 혼외 성교 경험을 가져도 된다	찬성	35(24.6)	6(8.5)	41(19.2)	8.693*
		보통	36(25.4)	18(25.4)	54(25.4)	
		반대	71(50.0)	47(66.2)	118(55.4)	
이증적 성 가치관	여성들은 혼외 성교 경험을 가져도 된다	찬성	25(17.6)	7(9.9)	32(15.0)	2.300
		보통	37(26.1)	19(26.8)	56(26.3)	
		반대	80(56.3)	45(63.4)	125(58.7)	
낙태	자위행위는 남성은 해도 좋으나 여성은 해서는 안 된다	찬성	3(2.1)	1(1.4)	4(1.9)	0.233
		보통	12(8.5)	7(9.9)	19(8.9)	
		반대	127(89.4)	63(88.7)	190(89.2)	
낙태	피임은 주로 여성이 하는 것이 좋다	찬성	5(3.5)	1(1.4)	6(2.8)	4.390
		보통	28(19.7)	7(9.9)	35(16.4)	
		반대	109(76.8)	63(88.7)	172(80.8)	
AIDS	결혼 전 원치 않는 임신의 경우 낙태 가능	찬성	58(41.1)	34(47.9)	92(43.4)	1.098
		보통	50(35.5)	24(33.8)	74(34.9)	
		반대	33(23.4)	13(18.3)	46(21.7)	
AIDS	결혼 후 원치 않는 임신의 경우 낙태 가능	찬성	46(32.4)	26(36.6)	72(33.8)	0.995
		보통	38(26.8)	21(29.6)	59(27.7)	
		반대	58(40.8)	24(33.8)	82(38.5)	
AIDS	AIDS에 감염되어도 기존의 사회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찬성	42(29.8)	21(29.6)	63(29.7)	0.763
		보통	44(31.2)	26(36.6)	70(33.0)	
		반대	55(39.0)	24(33.8)	79(37.3)	
AIDS	AIDS 감염자 발견 시 접촉을 회피하겠다	찬성	83(58.5)	34(47.9)	117(54.9)	3.430
		보통	43(30.3)	23(32.4)	66(31.0)	
		반대	16(11.3)	14(19.7)	30(14.1)	

* p<0.050, *** p<0.001

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에 찬성이라고 응답하여 사랑하는 사이에 있어서의 혼전 성관계에는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사랑하지 않는 사이에서의 혼전 성관계에 대해선 덜 개방적 태도를 보였다.

둘째, 혼외 성관계에 대한 태도를 보면 '사랑하는 사이라면 혼외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에는 27.2%가 찬성하였고, '사랑하지 않는 사이에도 혼외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에는 16.0%만이 찬성이라고 응답함으로써 혼전 성관계에 대해선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반면 혼외 성관계에 대해선 다소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

셋째, 이중적 성 가치관 관련 문항에 있어선 '남성의 혼전 성교 경험'에 대한 찬성은 50.7%이고 '여성의 혼전 성교 경험'은 44.6%가 찬성이라고 응답하여 혼전 성교 경험 허용에 있어 남녀에 대해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혼외 성교'에 대해 19.2%, '여성의 혼외 성교'에 대해 15.0%가 찬성이라고 응답하여 '혼외 성교'에 대해서도 남녀에 따른 이중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위행위는 남성은 해도 좋으나 여성은 해서는 안 된다' 및 '피임은 주로 여성이 하는 것이 좋다'의 이중적 가치기준을 묻는 성 태도 문항에는 각각 1.9%와 2.8%만이 찬성이고 89.2%와 80.8%의 반대를 나타내 성에 대한 이중적 가치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낙태에 대한 태도에선 '결혼 전에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한 경우 유산을 해도 된다'라는 문항에 대상자의 43.4%가 찬성이라고 응답하였고, '결혼 후에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한 경우 유산을 해도 된다'에 33.8%가 응답하여 결혼 전 낙태에 대한 허용이 결혼 후 낙태에 대한 허용에 비해 개방적임을 알 수 있다.

다섯째, 'AIDS에 감염되어도 기존의 사회활동을 지속해야 한다'에 27.9%만이 찬성이라고 응답하였고, 'AIDS 감염자 발견 시 접촉을 회피하겠다'에 54.9%가 찬성이라고 응답하여 AIDS에 대하여 비교적 경계하는 태도를 나타냈다.

(4) 대상자의 성행동

① 성 관련 매체의 접촉 경험

성 관련 매체 접촉 유무에 관한 질문에 있어선 성인영화에는 70.1%, 인터넷 포르노 사이트에는 67.3%가 접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다른 매체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여성잡지 51.9%, 성인만화 50.2%, 컴퓨터용 포르노 CD 47.6%, 포르노 비디오 46.9%, 성 관련 서적 38.4%이며 포르노 잡지 접촉 경험이 36.0%로 가장 낮았다. 또한, 인터넷 포르노 사이트에 대한 월 평균 접촉회수는 10.45회로 다른 매체에 대한 접촉빈도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성인영화 5.48회, 포르노 비디오 3.28회, 컴퓨터용 포르노 CD 1.93회로 나타났다(표 6).

② 이성교제, 성교 및 성 고민 경험

대상자의 91.6%(187명)가 이성교제 경험이 있고 이성교제의 깊이는 성교 43.8%, 애무 21.9%, 키스 19.8%, 손잡기 7.0%의 순으로 이성교제를 통한 신체적 접촉의 깊이는 성교경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자의 64.9%(131명)가 성교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자의 50.1%가 성 고민 경험이 있으며 성 고민 해결은 대상자의 55.1%가 '친구나 선배와 의논한다'에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의논할 상대가 없어 혼자 고민하는 경우도 17.6%나 되었다(표 7).

<표 6> 성 관련 매체 접촉 여부 및 월평균 접촉회수

단위: N(%)

매체	구분	남자(n=141)	여자(n=71)	소계(n=211)	월 평균 접촉회수 (평균±표준편차)
컴퓨터 포르노 CD	유	94(66.7)	7(9.9)	101(47.6)	1.93 ± 5.90
	무	47(33.3)	64(90.1)	111(52.4)	
	χ^2	61.091***			
인터넷 포르노 사이트	유	118(84.3)	24(33.8)	142(67.3)	10.45 ± 77.92
	무	22(15.7)	47(66.2)	69(32.7)	
	χ^2	54.553***			
성인 영화	유	110(78.6)	38(53.5)	148(70.1)	5.48 ± 58.27
	무	30(21.4)	33(46.5)	63(29.9)	
	χ^2	14.115***			
포르노 잡지	유	73(52.1)	3(4.2)	76(36.0)	1.80 ± 17.65
	무	67(47.9)	68(95.8)	135(64.0)	
	χ^2	14.115***			
포르노 비디오	유	89(63.6)	10(14.1)	99(46.9)	3.28 ± 29.79
	무	51(36.4)	61(85.9)	112(53.1)	
	χ^2	46.323***			
성관련 서적	유	64(45.7)	17(23.9)	81(38.4)	0.77 ± 4.08
	무	76(54.3)	54(76.1)	130(61.6)	
	χ^2	9.440**			
성인 만화	유	81(57.9)	25(35.2)	106(50.2)	1.23 ± 5.58
	무	59(42.1)	46(64.8)	105(49.8)	
	χ^2	9.664**			
여성 잡지	유	59(42.4)	50(70.4)	109(51.9)	0.95 ± 4.46
	무	80(57.6)	21(29.6)	101(48.1)	
	χ^2	14.734***			

** p<0.010, *** p<0.001

<표 7> 이성교제, 성교 및 성 고민 경험 분포

단위: N(%)

유형	구분	남자	여자	소계	X ²
이성교제 (n=204)	현재 사귀고 있다	67(48.2)	30(46.2)	97(47.5)	1.991
	사귀 경험 있으나 현재 없다	63(45.3)	27(41.5)	90(44.1)	
	경험 전혀 없다	9(6.5)	8(12.3)	17(8.3)	
이성교제의 깊이 (n=201)	손잡기	8(5.8)	6(9.5)	14(7.0)	13.565**
	키스	22(15.9)	18(28.6)	40(19.8)	
	애무	28(20.3)	16(25.4)	44(21.9)	
	성교	72(52.2)	16(25.4)	88(43.8)	
	경험 없음	8(5.8)	7(11.1)	15(7.5)	
성교경험 (n=202)	있다	109(77.9)	22(35.5)	131(64.9)	33.847***
	없다	31(22.1)	40(64.5)	71(35.1)	
성 고민 (n=202)	과거 고민 있었으나 현재는 없다	68(48.9)	31(49.2)	99(49.0)	0.118
	현재 고민하고 있다	22(15.8)	11(17.5)	33(16.3)	
	과거, 현재 모두 고민 없다	49(35.3)	21(33.3)	70(34.7)	
성 고민 해결방법 (n=205)	부모님과 의논한다	3(2.1)	3(4.6)	6(2.9)	13.785
	친구와 선배와 의논한다	81(57.9)	32(49.2)	113(55.1)	
	형제, 자매와 상의한다	2(1.4)	3(4.6)	5(2.4)	
	전문의와 상의한다	11(7.9)	3(4.6)	14(6.8)	
	성 상담전화를 이용한다	1(0.7)	1(1.5)	2(1.0)	
	잡지나 서적을 통해 해결한다	11(7.9)	14(21.5)	25(12.2)	
	의논할 상대 없이 혼자 고민한다	27(19.3)	9(13.8)	36(17.6)	
	고민 없음	4(2.9)	-	4(2.0)	

** p<0.010, *** p<0.001

2) 대상자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행동과 관련된 요인

(1) 대상자의 성지식과 관련된 요인

성지식과의 관련된 요인을 살펴본 결과, 전체 성지식 점수에 있어선 여학생과 남학생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영역별 성지식 점수를 보면 생식 및 성생리(t=-2.198, p<.050), 임신(t=-5.142, p<.001), 성폭력(t=-3.790,

p<.001)에 관한 지식점수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유의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표 4).

연령별로는 대상자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성병 및 AIDS(t=4.064, p<.001)에 관한 지식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2) 대상자의 성태도와 관련된 요인

Hudson 등(1992)의 도구에 의한 전반적 성태

도에 관련된 요인은 전공이었으며 음대, 미대에 재학 중인 예능 전공 학생이 타 전공 학생에 비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F=3.940, p<.050$). 그 외 성별, 연령, 종교, 출신고교 소재지, 부모의 생존여부, 부모의 학력, 가정의 월 소득, 주거 형태, 부모의 성태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세부 주제별 성태도와 관련된 요인은 성별, 연령 및 종교로 나타났다.

사랑하는 사이에 있어서의 혼전 성관계에 대해선 남녀학생 모두에서 개방적 태도를 보이며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사랑하지 않는 사이에서의 혼전 성관계 허용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으며($X^2=50.679, p<.001$) 23세 이상 연령에서 22세 이하 연령에 비해 사랑하는 사이에서의 혼전 성관계($X^2=21.005, p<.010$) 및 사랑하지 않는 사이에서의 혼전 성관계($X^2=37.629, p<.001$) 모두에서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불교를 종교로 가진 학생 및 무교인 학생들이 사랑하는 사이에서의 혼전 성관계 허용에 있어 다른 종교의 학생에 비해 개방적인 태도를 나타냈다($X^2=25.335, p<.001$).

혼외 성관계에 대해선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특히, 사랑하지 않는 사이에서의 혼외 성관계에 대한 허용에 있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보수적 태도를 나타냈다($X^2=15.272, p<.001$)(표 5). 또한, 22세 이하의 학생들이 23세 이상의 학생들에 비해 사랑하지 않는 사이의 혼외 성관계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X^2=18.328, p<.010$).

이중적 성 가치관을 묻는 문항에 있어선 전반적으로 성별에 따른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남성의 혼외 성관계에 대해선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다소 개방적인 태도를 나타냈다($X^2=8.693, p<.050$)(표 5).

낙태에 대한 태도에 있어선 기독교를 종교로 가진 학생이 다른 종교의 학생에 비해 결혼 전 낙태에 대해 보수적 태도를 보였으며($X^2=17.416, p<.050$), 결혼 후 낙태에 대한 허용에 있어선 연령에 따라 다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X^2=15.305, p<.050$).

3) 대상자의 성행동과 관련된 요인

대상자의 성 관련 매체 접촉여부에 관련된 요인을 살펴본 결과, 여성잡지의 경우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접촉경험이 많았으나($X^2=14.734, p<.010$) 그 외 컴퓨터용 포르노 CD($X^2=61.091, p<.001$), 인터넷포르노사이트($X^2=54.553, p<.001$), 성인영화($X^2=14.115, p<.001$), 포르노 잡지($X^2=14.115, p<.001$), 포르노 비디오($X^2=46.323, p<.001$), 성 관련 서적($X^2=9.440, p<.050$), 성인만화($X^2=9.664, p<.050$)에 대해선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은 접촉경험을 나타냈다(표 6). 또한 여성잡지를 제외한 다른 7개의 성 관련 매체에 대해 23세 이상의 연령에서 22세 이하의 연령에 비해 접촉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상자의 성경험 분포는 이성교제 시 관계의 깊이에 있어선 성별($X^2=13.565, p<.010$)과 연령($X^2=22.776, p<.050$)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성교경험은 남학생이 77.9%로 여학생의 35.5%에 비해 많았으며($X^2=13.565, p<.001$), 연

령이 증가할수록 성교경험이 증가함을 보였는데 25세 이상 학생이 77.1%로 가장 높은 성교경험을 나타냈다($X^2=23.005$, $p<.001$)(표 7).

3) 대상자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행동간의 관계

(1) 대상자의 성태도와 성지식의 관계

대상자의 성지식과 성태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성지식과 성태도간의 상관관계는 0.324로 유의수준 0.001에서 낮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따라서 성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즉, 성태도가 개방적일수록 성지식 점수가 높다고 할 수 있다($r=0.324$, $p=0.000$).

(2) 대상자의 성행동과 성지식의 관계

성 관련 매체에 접촉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성 관련 매체에 접촉한 경험이 없는 학생에 비해 전반적으로 성지식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나 여성잡지를 접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성지식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t=2.670$, $p<.010$). 그 외 대상자의 이성교제 경험, 이성교제 시 관계의 깊이, 성교 경험, 성 고민 경험 및 성 고민 시 해결방법 선택경험은 성지식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대상자의 성행동과 성태도의 관계

성 관련 매체에 접촉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전반적으로 성태도에 있어서 성 관련 매체 접촉 경험이 없는 학생에 비해 보다 개방적인 성태도를 나타냈다. 즉, 성인영화를 본 경험이 있는 학생($t=2.781$, $p<.010$), 포르노 잡지를 접한 경험이 있는 학생($t=3.026$, $p<.010$), 포르노 비디오를 접

한 경험이 있는 학생($t=2.659$, $p<.010$), 성 관련 서적을 접한 경험의 학생($t=2.380$, $p<.050$) 및 성인만화를 접한 경험의 학생($t=3.873$, $p<.001$)의 경우 보다 개방적인 성태도를 보였다.

이성교제의 경험, 이성 교제 시 관계의 깊이, 성 고민 경험 및 성 고민 시 해결방법에 따라선 성태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성교경험에 따른 성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성교경험이 있는 학생이 성교경험이 없는 학생에 비해 개방적인 성태도를 보였다($t=2.677$, $p<.050$).

2. 성교육 프로그램 개입에 따른 성지식, 성태도의 변화

1)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동질성 확인

성별, 나이, 전공, 종교, 출신고교소재지, 부모의 생존여부, 부모의 교육정도, 가정의 월 소득, 주거형태 등의 일반적 특성에 있어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두 집단이 일반적 특성에서 유사한 특성을 지닌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지식과 성태도에 있어서도 실험집단의 사전 성지식 평균(100점 만점)은 72.72점이고, 비교집단의 사전 성지식 평균은 72.34점으로 두 집단간 성지식 평균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Hudson 등(1992)의 측정도구에 의한 성태도에 있어서 실험집단의 사전 평균(최고100점 기준)은 64.26점이고, 비교집단의 사전 평균은 65.20점으로 두 집단 간 전반적 성태도 평균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따라서 두 집단은 성교육 개입이전의 성지식과 성태도 평가도구 상에서 동질한 상태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2) 성교육 실시에 따른 성지식, 성태도의 변화
 실험집단의 연구 대상자들의 성지식과 성태도가 성교육 개입 전후로 변화하였는지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험집단의 성지식에 대한 교육이전·이후 변화를 보면, 성지식의 교육이전 평균(100점 만점)은 72.72점이고, 교육이후 평균은 85.13점으로 이러한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반면 비교집단의 성지식의 교육이전·이후 변화를 보면 교육이전 평균은 72.34점이고, 교육이후 평균은 71.81점으로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표 9).

따라서 성교육 실시 이후 성지식 변화가 거의 없었던 비교집단과는 달리 실험집단에서는 성지식에 대해 유의한 변화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본 연구의 성교육을 통해 실험집단의 연구대상자는 정확한 성지식을 얻었으며 잘못된 성지식을 바로잡는 기회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실험집단의 성태도에 대한 교육이전·이후 변화를 보면, 교육이전 평균(최고 100점 기준) 64.26점에서, 교육이후 평균 61.55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나타냈다($p < .010$). 그러나 비교집단 역시 교육이전 평균 65.02점에서 교육이후 평균 60.38점으로 변화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10$)(표 9).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실험집단에서 성교육 실시 이후 성태도에 대해 유의한 변화를 나타내어 개방적 성태도가 약간의 보수성향으로 바뀌었지만 비교집단 역시 비슷한 정도의 변화를 보이므로 이를 성교육의 효과라고 볼 수 없다. 즉, 본 연구에서 제공된 성교육은 연구대상자의 전생애를 걸쳐 형성되어온 전반적 성태도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이라 할 수 없다.

<표 8> 성지식, 성태도 측정도구상의 집단간 사전점수 비교

구분	실험집단			비교집단			t값	p-value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성지식	113	72.72	12.95	100	72.34	13.14	0.210	0.834
성태도	113	64.26	10.04	100	65.20	9.62	-0.698	0.486

<표 9>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교육 전·후 성지식 및 성태도의 변화

대상	구분	교육이전 (평균±표준편차)	교육이후 (평균±표준편차)	t값	p-value
실험집단	성지식	72.72±12.95	85.13±9.36	-8.234	0.000
	성태도	64.26±10.04	61.55±10.87	1.926	0.005
비교집단	성지식	72.34±13.14	71.81±17.52	0.241	0.810
	성태도	65.02±9.51	60.38±11.75	3.019	0.003

IV. 고 찰

1.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행동 실태

대상자의 성 관련 정보 출처로는 친구가 30.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인터넷 관련 사이트 25.8%, 책·만화·잡지·신문이 20.7%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 정보 주요출처가 친구인 것은 기존연구들과 유사하나 성영자(1984)의 연구에서의 성 정보 출처가 친구 67.4%인 것과 이인숙(1995)의 48.5%인 결과에 비해 성 정보 출처로써의 친구의 중요도가 낮은 반면 인터넷 관련 사이트를 통한 성 정보 습득이 증가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산업의 발달 및 인터넷을 통한 성 관련 정보의 범람에 노출된 대학생들의 환경변화를 반영한 결과인 것으로 생각되며 여전히 체계적인 성교육을 통해 성지식을 얻는 경우보다는 친구 및 인터넷 관련사이트, 잡지 등의 대중매체를 통한 정확하지 않고 왜곡된 정보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된다(문인옥, 1997; 성영자, 1984; 김주연, 1993; 이인숙, 1994; 남명희, 1999).

대학이전 초·중·고 교육과정에서의 성교육 수강경험에 있어선 대상자의 41.3%가 평균 2.4시간의 성교육을 초등학교 때 받았으며, 65.3%가 3.0시간의 성교육을 중학교에서, 63.8%가 평균 3.4시간의 성교육을 고등학교에서 받았다고 응답하여 성교육 수강시간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많아짐을 보이고 있으나, 초·중·고 전체 교육기간 동안의 평균 성교육 시간은 5.0시간으로 김경신(2001)의 3.3시간과 유사한 결과이다. 따라서 제대로 성교육을 받았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수강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함과 여전히 초·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청소년

년 모두에게 성교육이 제공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1982년 문교부의 학교 성교육 실시 발표를 시작으로 성교육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었으나 여전히 초·중·고 중심의 학교 성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성지식 점수는 72.54점(100점 만점 기준)으로 대체로 높았으며 이는 평균 71.9점(100점 만점 기준)의 성지식 수준을 보인 이영휘 등(1997)의 연구 및 성영자(197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나 대학생의 성지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연구도 적지 않았다(이인숙, 1995; 이인숙 등, 1999; 김경신, 2001). 성지식이 낮은 영역으로는 성병 및 AIDS에 관한 지식이었으며 연령별로는 대상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성병 및 AIDS에 대한 성지식이 증가함을 보였다. 따라서 성병 및 AIDS 감염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환경에서 성적활동이 활발한 대학생에게 필요한 성지식으로 성병 및 AIDS에 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가 필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성에 대한 전반적 태도는 64.70점(최고 100점 기준)으로 긍정적, 개방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학생의 성에 대한 태도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보고한 다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김은자, 1979; 성영자, 1984; 박희두, 1997). 혼전 성관계에 대해선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개방적인 태도를 나타냈는데 이는 강병우(1994), 이인숙(1995), 박희두(199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남녀학생의 79.2%가 사랑하는 사이에서의 혼전 성관계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대상자의 37.6%가 사랑

하지 않는 사이에서의 혼전 성관계에 대해 찬성함으로써 혼전 성관계에 대해 상당히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남학생의 52.0%와 여학생의 40.0%가 남녀 모두 혼전 성관계가 무방하다고 응답한 강병우(199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대학생들의 혼전 성관계에 대한 태도는 사랑한다면, 심지어는 남학생의 경우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혼전 성관계가 가능하다'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며 더 이상 혼전 순결이 결혼의 전제조건이 아님을 나타냈다.

남녀 혼전 성관계, 남녀 혼외 성관계 및 기타 이중적 성 가치관을 묻는 문항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자위행위는 여성은 해서는 안 된다' 및 '피임은 주로 여성이 하는 것이 좋다'의 뚜렷한 이중적 성 가치 기준을 나타내는 문항에 있어서 각각 대상자의 1.9%, 2.8%만이 찬성의 태도를 보여 이중적 성 가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을 나타냈는데, 이는 대학생들이 이중적 성 가치 기준을 보인다고 보고한 강병우(1994), 이인숙(1995), 박희두(1997)의 연구와는 사뭇 다른 결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보수적인 우리문화권에서 여성의 순결만을 강조하는 등의 남녀사이의 이중기준이 대학생들에게서 점차 사라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결혼 전 낙태에 대해 대상자의 43.4%, 결혼 후 낙태에 대해 33.8%가 찬성함으로써 낙태에 대해 비교적 개방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한 해 낙태가 100만에서 150만 건으로 추정되는 우리나라의 낙태 실태(<http://www.profile.or.kr>, 2003.7.2)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또한, AIDS에 대해선 이해부족과 비교적 경계하는 태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성 개방화로 인한 성행동 양상의 빠른 변화에 비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성 문제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해결능력의 무지와 부재의 일면을 그대로 보여 준다 하겠다. 따라서 성에 대한 적절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성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심어줄 수 있는 성교육이 대학생에게 실시되어야 하겠다. 특히, 성교육의 필수내용에 해당하는 생식생리, 임신, 출산, 피임, 가족계획, 성병 및 AIDS에 관한 성교육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 성교육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성행동에 있어선 8개의 성 관련 매체 중 성인영화(70.1%)와 인터넷 관련사이트(67.3%)에 대해 높은 접촉경험을 보였으며 이들 매체에 대한 월 평균 접촉회수는 인터넷 관련 사이트 10.45회, 성인영화 5.48회였다. 이는 대학생의 성 정보 습득 및 성가치관 형성에 있어서의 성 관련 매체의 영향이 지대함을 알 수 있는 결과로 해석된다. 따라서 대중매체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부각되는 사회, 문화적 환경을 재점검 해보아야 할 것이며 한편으론 대중매체의 지대한 영향력을 활용하여 대중매체를 통한 성교육 실시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된다.

성경험에 있어선 대상자의 91.6%가 이성교제 경험이 있고 이성교제를 통한 신체적 접촉의 깊이는 성교경험(43.8%)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64.9%가 성교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성교제 경험이 79.6%, 이성교제 시 15.6%가 성교관계를 갖으며 27.4%가 성교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박희두(1997)의 연구 및 대학생의 31.2%가 성교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이인숙(1995)의 연구에 비해 대학생들의 이성교제 및 성교경험이 많이 증가했

음을 보여주고 있다. 성 개방화가 가속화되는 환경에서 지난 4-5년 전보다 대학생의 성경험이 증가함을 나타내는 본 연구의 결과는 당연하다 생각되나 그 해석에 있어 본 연구 대상자의 연령분포가 23세 이상이 75.1%인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성교제 및 성교경험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연구결과와 같았다(이인숙, 1995; 박희두, 1997; 남명희, 1999). 그러므로 대학생의 개방적인 성태도와 활발한 성적 활동을 인정하고 그들이 보다 성에 대해 긍정적이며 책임감을 갖고 자신의 성적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교육의 실시와 효과적인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계속되어야 하겠다. 또한, 주요 성 고민 해결 대상자는 친구와 선배였으며(55.1%) 의논 상대가 없어 혼자 해결하는 경우도 17.6%나 되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성 고민 해결에 있어서 성교육을 통한 적절한 해결 능력을 함양함과 동시에 학교 상담실 운영 등을 통한 성 고민 및 성 문제 해결창구 제시가 시급하다 하겠다.

대상자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행동간의 관련성을 분석해본 결과 전반적 성태도와 성지식간에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0.324$, $p=0.000$). 성행동과 성지식과의 관계에 있어선 성 관련 매체 중 여성잡지에 접촉경험이 있는 학생이 성지식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나($t=2.670$, $p<.010$) 대상자의 이성교제 경험, 이성교제 시 관계의 깊이, 성교경험, 성 고민 경험 및 성 고민 시 해결방법에 따라선 성지식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성행동과 성태도와의 관련성에 있어선 성 관련 매체에 접촉 경험이 있는 학생이 전반적으로 성태

도에 있어서 개방적인 성태도를 나타냈으며 성교경험이 있는 학생이 성교경험이 없는 학생에 비해 개방적인 성태도를 보였다($t=2.677$, $p<.050$). 본 연구결과 대학생의 성 관련 매체에 노출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성 관련 매체 접촉경험이 대학생의 성지식 및 성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대학생의 성교육에는 반드시 성 관련 매체의 영향력 및 이에 대한 시각 등을 다룰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본 연구의 실험집단은 '여성과 건강'이란 보건교육에 포함된 통합교육 형태의 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았는데 프로그램 개입이전 보다 개입이후 실험집단의 성지식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대학생 대상 성교육 효과를 연구한 김경신(2001)의 연구결과 및 청소년 대상 성교육 효과에 관한 연구결과와 같았다(한유정, 1996; 양주연, 1997; 김주연, 1998; 계수연, 1998; 성신명, 2000; Parcel 등, 1979; Parcel 등, 1981; Frank 등, 1985; Green&Sollie, 1989). 즉, 본 연구의 성교육 프로그램은 정확한 성지식의 증가에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대학생들에게 친구 및 대중매체를 통한 왜곡된 성 정보 습득을 지양토록 하고 정확하고 올바른 성지식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선 현재 일부 대학에서 실시하는 성교육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실험집단의 성태도에 있어서도 성교육 개입 이전·이후 성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나타냈는데 즉, 개방적 성태도가 약간 보수적인 성향으로 바뀌었으나 비교집단 역시 비슷한 정도의 태도변화를 보여 성교육이후 나

타난 실험집단의 성태도 변화는 본 연구의 성교육 효과라고 해석할 수 없다. 본 연구 결과와는 달리 김경신(2001)의 연구는 성교육 이후 대상자의 성 역할 태도, 성 가치관이 성교육 이전보다 근대적인 경향으로 변화하여 성태도 변화에 성교육이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였으나 김경신(2001)의 연구는 비교집단을 구성한 실험연구가 아닌 성교육 집단의 교육전후 단순비교이므로 성태도 변화를 성교육의 효과로 해석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지난 20년 동안 친구, 부모, 대중매체 등을 통한 성 관련 정보습득 및 개방화된 성문화 환경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대학생의 성태도가 계절학기 또는 한 학기에 제공된 성교육을 통해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대학생의 성교육은 일회성 단기교육이 아닌 성지식의 증가뿐 아니라 자신의 성적 주체성을 이해하고 성가치관 확립 및 책임감 있는 관계정립 등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여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성태도를 지닌 성인으로써 한 가정, 지역사회 및 사회의 주인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체계화되고 연속성 있는 성교육이 다양한 측면에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서울시내 일개 대학교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행동 실태를 파악하고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그 효과를 성지식과 성태도 변화 중심으로 평가 분석한 것이다.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수집은 성교육 프로그램이

개입되기 전인 2003년 6월 23일 사전조사의 형태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 실시하였다. 곧이어 실험집단에 3주간에 걸쳐 보건교육 및 성교육 전문 교수가 매회 50분의 성교육을 주 5회 총 14회를 제공하였으며 성교육 개입이 완료되는 2003년 7월 11일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대상자는 모두 213명으로 사전조사 대상인 실험집단 113명과 비교집단 100명이었으며 사후조사 대상자는 실험집단 112명과 비교집단 97명이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성지식, 태도 및 행동의 실태

- (1)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66.7%, 여자 33.3%이며 연령 분포는 20세 이하 6.1%, 21-22세 18.8%, 23-24세 39.4%, 25세 이상 34.7%이었으며 전공은 공학부가 62.0%로 가장 많았으며 대상자의 성 관련 정보 출처로는 친구가 30.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인터넷 관련 사이트 25.8%이었다.
- (2) 대상자의 성지식 점수는 최고 100점 만점기준에서 평균 72.54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영역별 성지식 평균 점수는 생식생리 86.97점, 성심리 83.72점, 임신 73.30점, 피임낙태 70.23점, 성폭력 61.50점, 성병 및 AIDS 59.30점 순으로 성병 및 AIDS에 관해 정답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Hudson 등(1992)이 개발한 전반적 성태도 측정도구에 의한 대상자의 전반적 성태도 점수는 64.70점(최고 100점 기준)으로 성태도는 긍정적, 개방적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주제에 대한 각각의 태도를 살펴본 결과 첫째, 사랑하는 사이의 혼전 성관계에 79.2% 및 사랑하지 않는 사이의 혼전 성관계에 37.6%가 찬성함으로써 혼전 성관계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둘째, 혼외 성관계에 대한 태도를 보면 사랑하는 사이의 혼외 성관계에 27.2% 및 사랑하지 않는 사이의 혼외 성관계에는 16.0%만이 찬성이라고 응답하여 혼전 성관계에 대해선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반면 혼외 성관계에 대해선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

셋째, 이중적 성가치관 관련 문항인 '혼전 성교 경험', '혼외 성교 경험', '자위행위' 및 '피임'에 대하여 남녀에 따라 이중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낙태에 대한 태도에선 결혼 전 낙태 허용에는 대상자의 43.4% 및 결혼 후 낙태 허용에는 33.8%가 찬성이라고 응답하여 낙태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섯째, 'AIDS에 감염되어도 기존의 사회활동을 지속해야 한다'에 27.9%만이 찬성이라고 응답하였고 'AIDS 감염자 발견 시 접촉을 회피하겠다'에 54.9%가 찬성이라고 응답하여 AIDS에 대하여 비교적 경계하는 태도를 나타냈다.

- (4) 성 관련 매체 접촉에 있어서는 성인영화(70.1%) 및 인터넷 포르노 사이트(67.3%)에 접해본 경험이 다른 매체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인터넷 포르노 사이트에 대한 월 평균 접촉회수는 10.45회로 다른 매체에 대한 접촉빈도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91.6%가 이성교제 경험이 있고 이

성교제를 통한 신체적 접촉의 깊이는 성교 경험(43.8%)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자의 64.9%가 성교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자의 50.1%가 성고민 경험이 있으며 성고민 해결은 친구 및 선배와 의논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2) 대상자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행동과 관련된 요인

- (1) 생식 및 성생리($t=-2.198, p<.050$), 임신($t=-5.142, p<.001$), 성폭력($t=-3.790, p<.001$)에 관한 지식점수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대상자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성병 및 AIDS($t=4.064, p<.001$)에 관한 지식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 (2) 전반적 성태도에 있어서는 음대, 미대에 재학 중인 예능 전공 학생이 타 전공 학생에 비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F=3.940, p<.050$). 사랑하는 사이에 있어서는 혼전 성관계에 대해선 남녀 학생 모두에서 개방적 태도를 보이며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사랑하지 않는 사이에서의 혼전 성관계 허용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X^2=50.679, p<.001$). 또한, 대상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종교가 불교인 경우 혼전 성관계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이었다. 혼외 성관계에 대해선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이중적 성가치관을 묻는 문항에 있어선 전반적으로 성별에 따른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낙태에 있어선 기독교를 종교로 가진 학생이 다른 종교의 학

생에 비해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

- (3) 성행동에 있어서는 이성교제를 통한 신체적 접촉의 깊이에 있어선 성별($X^2=13.565$, $p<.010$) 및 연령($X^2=22.776$, $p<.050$)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성교경험은 남학생이 77.9%로 여학생의 35.5%에 비해 많았으며($X^2=13.565$, $p<.001$), 연령이 증가할수록 성교경험이 증가함을 보였다($X^2=23.005$, $p<.001$).

성 관련 매체 접촉여부에 있어 여성잡지의 경우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접촉경험이 많았으나($X^2=14.734$, $p<.010$) 그 외 컴퓨터용 포르노 CD, 인터넷포르노사이트, 성인영화, 포르노잡지, 포르노 비디오, 성 관련 서적, 성인만화에 대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은 접촉경험을 나타냈다.

3) 대상자의 성에 대한 성지식, 성태도 및 성행동간의 관계

- (1) 성지식과 성태도간의 상관관계는 0.324로 유의수준 0.001에서 낮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0.324$, $p=0.000$). 따라서 성태도가 개방적일수록 성지식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2) 성 관련 매체 중 여성잡지를 접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성지식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t=2.670$, $p<.010$) 이성교제 경험, 이성교제 시 관계의 깊이, 성교경험, 성 고민 경험 및 성 고민 시 해결방법에 따라선 성지식 점수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 (3) 성 관련 매체에 접촉 경험이 있는 학생이 경험이 없는 학생에 비해 보다 개방적인 성태도를 나타내어 성인영화를 본 경험이 있는 학생($t=2.781$, $p<.010$), 포르노 잡지를 접한 경험이 있는 학생($t=3.026$, $p<.010$), 포르노 비디오를 접한 경험이 있는 학생($t=2.659$, $p<.010$), 성 관련 서적을 접한 경험의 학생($t=2.380$, $p<.050$) 및 성인만화를 접한 경험의 학생($t=3.873$, $p<.001$)의 경우 접촉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개방적인 성태도를 보였다.

4) 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성교육 실시 이후 성지식 점수에 변화가 거의 없었던 비교집단과는 달리 실험집단에서는 교육이전 평균이 72.72점에서 85.13점으로 성지식 증가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나타내었다($t=-8.234$, $p<.001$).

성교육 이전·이후 성태도 변화를 살펴보면 교육이전 평균은 64.26점이고, 교육이후 평균은 61.55점으로 이러한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교 집단에서도 교육 이전·이후 비슷한 정도의 태도변화를 나타내어 성교육이후 나타난 실험집단의 태도변화가 본 연구의 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라 할 수 없다.

2. 제언

본 연구결과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결과 대학생들이 성병 및 AIDS 감염 위험과 낙태 등의 건강문제에의 노출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성교육 내용에는 대학생들이 자신의 성적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임신, 피임, 성병, AIDS 및 낙태에 관한 보다 구체적이고 활용 가능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대학생들의 빠르게 변화하는 성태도와 성행동 양상의 변화에 맞는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성교육을 제공함과 동시에 학교 내 상담실 운영 등을 통한 성 고민 해결창구 제시 및 성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제공되어야 하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공된 성교육은 계절 학기를 이용한 3주간 14회의 집중적 단기 성교육이므로 향후 한 학기 또는 1년 등의 보다 장기 성교육 프로그램 개입을 통한 성교육 효과연구 및 장기·단기 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비교연구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성교육 이후 1차 사후조사를 통한 성교육 효과만을 분석하였으나 계속해서 2차 및 3차의 시간경과에 따른 성교육 효과 비교에 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접수일자: 2003년 12월 2일, 게재확정일자: 2004년 2월 14일>

참고문헌

- 강병우. 대학생의 성 및 AIDS에 관한 의식 연구, 한국보건교육학회지, 1994;11(1):43-56.
- 계수연. 성교육 실시에 따른 성지식, 성태도 변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보건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 김경미. 남자중학생에 대한 성교육프로그램 효과 검증,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김경신. 대학생의 성의식 실태분석을 통한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001; 6(1):181-201.
- 김미주. 초·중·고등학교 성교육 교재 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김영희, 이명화. 성교육이 초등학생의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997;10(2):255-275.
- 김은자. 남녀 대학생의 특성에 따른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의 실태와 성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9.
- 김주연. 소그룹 토의학습을 중심으로 한 성교육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 남명희. 일부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성경험에 관한 조사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999;10(1):239-251.
- 문인옥. 일부대학생의 성의식 및 성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교육학회지, 1997;14(2):95-112.
- 박희두. 대학생의 성의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 1997;3(1):95-125.
- 사은령. 성교육 학습방법에 따른 성지식 및 태도 변화에 관한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5.
- 성신명.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 성영자. 남녀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과 상관변인에 관한 분석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양순옥, 김성실, 정금희, 김신정. 중학생의 성지식과 성태도,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000;11(2): 591-605.
- 양주연. 성교육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성지식과 성태도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유가효. 청소년의 성문화와 성교육프로그램 방향 모색, 과학논집, 1997;23(1):1-10.

- 이난영. 여자중학교 성교육 실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이영희 외 6명. 대학생의 성지식과 성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1997;27(1):26-35.
- 이원재, 반덕진. 일부 대학생들의 건강관련행위, 보건교육·보건증진학회지, 1999;16(2):157-171.
- 이인숙. 일부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 및 성교육 요구에 관한 조사연구, 연세대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이인숙, 전미양, 김영희, 정미숙. 일부 전문대학생들의 성지식과 성교육 요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000,1;4(2):382-395.
- 이정애, 이혜숙. 대학생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교육학회지, 1998;15(2):105-117.
- 장말희. 성교육을 통한 초등학생의 성지식 및 성태도 변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장영미, 이시백. 학교 성교육 효과, 한국보건교육학회지, 1997;14(1):125-145.
- 한유정. 성교육이 중학생의 성지식과 성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한정자, 정해숙, 양애경, 김홍숙. 중학생 학부모용 성교육 읽기 자료 개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1994.
- Fischer J., Corcoran K. Measures for Clinical Practice : A Sourcebook, The Free Press, A Division of Macmillan, Inc. New York, 1994.
- Furstenberg, Jr. F. F., Moore K. A., Perterson J. L. Sex Education and Sexual Experience among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985, November;75(11):1331-1332.
- Green S. K., Sollie D. L. Long-term Effects of a Church-Based Sex Education Program on 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Relations, 1989, April;152-156.
- Gunderson M. P, McCary J. L : Effects of Sex Education on Sex I Information and Sexual Guilt, Attitudes, and Behaviors, Family Relations, 1980, Vol.29, 375-379.
- Hudson W. W., Murphy G. J., Nurius P. S. : The WALMYR Assessment Scales Scoring Manual. Tempe, AZ: WALMYR Publishing Co., 1992,
- Kirby D. PhD. The Effects of School Sex Education Programs: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School Health, 1980, December: 559-563.
- Kirby D. PhD. Sexuality Education : A More Realistic View of its Effects. Journal of School Health, 1985;55(10):421-424.
- Kirby D. PhD. School-Based Programs to Reduce Sexual Risk-Taking Behaviors, Journal of School Health, 1992, September;62(7):280-287.
- Kirby D., Short L., Rugg D., Kolbe L., Howard M., Miller B., Sonenstein F., Laurie S. Z. School Based Programs to Reduce Sexual Risk Behaviors: A Review of Effectiveness, Public Health Reports, 1994, May-June;109(3):339-360.
- Parcel G. S., Luttmann D., MS, Meyers M. P. Formative Evaluation of a Sex Education Course for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School Health, 1979, June, 335-339.
- Parcel, G. S., Luttmann, D. Evaluation in Sex Education-Evaluation Research for Sex Education Applied to Program Planning, Journal of School Health, 1981, April; 278-281.
- Pollack M. Planning and Implementing Health education in school, Mayfield, 1987.
- Scales P., Kirby D. A Review of Exemplary Sex Education Programs for Teenagers Offered by Nonschool Organizations, Family Relations, 1981, April;30:238-245.
- SIECUS. National Guidelines Task Force Guidelines for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Kindergarten-12th Grade, New York: Sex Information and Education Council of United States, 1991.

<http://www3.yonhapnews.co.kr> (2003.7.2)

<http://search.encyber.com> (2003.8.27)

<http://unaid.or.kr> (2003.9.22)

<http://www.hongshin.net> (2003.7.2)

<http://www.prolife.or.kr> (2003.7.2)

<ABSTRACT>

Sexual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s of Korea College Students and Effects of Sexual Education on Sexual Knowledge and Attitudes

Gyeong-Suk Jeon · Hyo-Young Lee · Seon-Ja Rhe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done to examine the sexual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s of Korea college students and investigate the effects of sexual education programs on college students with respect to their sexual knowledge and sexual attitudes. For these objectives, a single 92 item sexual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213 college students (113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100 in the control group) as a pretest one day before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ed in a sexual education program. Then a three week sexual education program was given to the experimental group and a posttest was administered to both groups day after the program.

The findings from the pretest ;

- 1) The main sources of sexual information were friends, Internet, books and magazines. College students in this study showed relatively high scores on their overall sexual knowledge but showed low scores on their knowledge of venereal disease and HIV/AIDS. Female students had a higher sexual knowledge of physiology, pregnancy and sexual abuse than male students.
- 2) The overall sexual attitudes of college students were subjective. They showed especially strong liberal attitudes to premarital intercourse, had few double standards and agreed on induced abortion. Male students showed a more liberal attitude to premarital intercourse and extramarital intercourse ($\chi^2=50.679$, $p<.001$). Christian students showed the lowest rates of permissiveness for induced abortion than students of other religions.
- 3) 64.9% of the subjects in this study had experience in intercourse. The gender and age of students did influence the experience rates of intercourse. Male students had much higher rates of intercourse than female students ($\chi^2=13.565$, $p<.001$) and older students had higher experience rates of intercourse.
- 4) From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s, this study revealed that sexual knowledge and sexual attitudes of college students have a correlation ($r=0.324$, $p=0.000$). Students' experience of intercourse did not influence their sexual knowledge scores, but did influence their sexual attitudes. Students who had experience of intercourse showed more liberal sexual

attitudes than those students who did not ($t=2.677$, $p<.050$). And students who were exposed to sexual media such as pornography, sexual magazines, sexual books and the Internet, also showed more liberal sexual attitudes than those students who were not.

The findings from the comparison of pretest and posttest ;

1. The sexual knowledge of the experimental group that participated in the sexual education program was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the program compared to before the program ($p<.001$). However the control group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change in their sexual knowledge.
2. The sexual attitudes of the experimental group were also changed significantly becoming less liberal ($p<.001$). The control group also showed significant change in their sexual attitudes, also becoming less liberal ($p<.001$).

Therefore, the sexual education program used in this study was effective in increasing college students' accurate sexual knowledge, but had little effect on their sexual attitudes.

Key words :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s, Sexual Behaviors, Sexual Education, College Students